

‘세계 유일’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8월 30일 개막

20개국 82명 작가 300여점 전시
해외 작가들 참여 급증 ‘글로벌화’
목포·진도·해남에 총 6개 전시관
“수목 본질, 현대적으로 해석·확장”

‘문명의 이웃들·somewhere over the yellow sea’이란 주제로 오는 8월30일부터 두 달여간 펼쳐질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를 수놓은 국내·외 참여 작가 명단이 확정·발표됐다.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참여 작가 명단과 전

시 방향 등을 소개했다.

참여 작가들은 ‘수목으로 그리는 세계의 새로운 중심’을 목표로 20개국 82명이 참여한다. 국내 49명(작가 17명, 생존 32명)과 해외 생존작가 33명이 참가한다.

해외에서는 국제적 작가인 중국의 란한, 일본의 팀랩(teamLab)을 비롯해 중국 8명, 일본 5명, 네덜란드·호주·폴란드 각 2명, 대만·미국·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폴·인도·페루·홍콩·핀란드·인도네시아·이란 각 1명씩이다.

올해 수목비엔날레는 직전 2023년 비엔날레 당시 13%이던 해외작가 비중을

40%로 대폭 늘려 수목화의 글로벌화를 꾀했다.

목포와 진도에서만 열렸던 직전 비엔날레와 달리 이번엔 수목의 뿌리가 전남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해남 고산 운산도박물관으로도 넓혀 3원 전시 체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관은 해남 고산운산도박물관과 땅끝 순례문화관, 진도 소전미술관과 남도 전통미술관, 목포 실내체육관과 문화예술회관 등 모두 6곳에 설치됐다.

또 하나의 주제 아래 전시관별 콘셉트를 설정해 해남은 최고의 수목 거장전과

봇의 향연을, 진도는 수목의 확장·여백의 미와 실험성, 채움과 비움·수목추상 및 채색, 목표는 수목 예술의 동시대 가치와 새로운 자연·움직이는 수목 등으로 잡았다.

수목을 전통기법에 머무르지 않고, 설치·영상·디지털 매체와 접목한 실험적 시도를 확대한 점도 이번 비엔날레의 특징이자 달라진 점이다.

여기에 예년과 달리 진도·해남에서 프리뷰와 프리오프닝을 운영하는 등 개막행사의 다양화로 관심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등 단체 관람객 유치, 도내·외 기관과의 협약(MOU), 인센티브

지원도 차별화된 전략으로 짚힌다.

김형수 사무국장은 “수목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줄 전시가 될 것”이라며 “아시아 작가들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현대 작가들의 참여가 눈에 띈다”고 밝혔다.

윤재갑 예술감독은 “수목은 더 이상 과거의 회화 장르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이번 전시는 수목의 본질을 현대적으로 해석·확장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전남이 지닌 수목의 역사성과 함께 동시대 예술 흐름을 연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광주시, 건축물 가연성 외장재 교체 지원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도

광주광역시와 건축물 화재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건축물의 가연성 외장재 교체사업과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광주광역시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찾아가는 현장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은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지어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에 타기 쉬운 건축물의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시행된다.

사업 대상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3층 이상 건축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다.

광주광역시는 이번 사업 의무 대상 건축물 중 현재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직접 찾아가 사업 목적, 보강 대상 및 범위, 보강 방법, 보조금 지원절차·규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보강·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 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안심도시 광주’를 구현할 방침이다.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대상 건축물은 올해 말까지 보강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에 보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84개 건축물이 보강을 완료했다. 미완료된 49개 건축물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모든 건축물이 보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상이 기자



철쭉과 봄비

봄비가 내린 22일 광주 북구 동강대학교 학생들이 교정에 활짝 핀 오색 철쭉꽃을 바라보며 강의실로 향하고 있다.

김영배 기자

전남도, 5년 연속 행안부 ‘청년마을’ 선정

전남도, 해남 산이정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생대회·북콘서트 등 다채

전라남도는 따뜻한 봄날, 가족 단위 방문객이 자연 속에서 특별한 체험을 즐기도록 해남 솔라시도 산이정원에서 오는 26일 ‘산이정원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이정원은 전남 최초의 정원형 식물원으로,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이다. 이번 봄 행사는 ESG경영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체험과 공연,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가족 단위 관람객과 어린이에게 특별한 봄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내가 꿈꾸는 ESG 세상’이라는 주제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어린이 사생대회가 열린다. 정원의 자연을 직접 느끼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며, 우수작은 현장 심사를 통해 시상과 함께 산이정원에 전시된다.

가든뮤지엄 2층 카페에서는 ‘ESG 북콘서트’와 ‘ESG 에너지 정원 토크쇼’가 진행된다.

김창섭 전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김인호 환경교육연구소장 등과 국내 최고의 환경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와 실천 사례를 공유하며, 방문



산이정원 전경.

전남도 제공

객과 함께 ESG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원 곳곳에는 친환경 머그컵 만들기, ESG 풍경 그리기, 환경캠페인 부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어린이 오케스트라, 태권도 시범, 댄스공연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연도 진행된다.

서순철 전라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산이정원은 생태·문화·교육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자연의 가치와 환경의 중요성을 느끼는 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 시간은 산이정원 공식 누리집(www.sanigarde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보성 전체차렷 마을…최대 6억 지원

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에 5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청년마을은 청년이 지역에 머물며 자발적으로 일과 삶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선정된다.

전라남도는 2018년 목포 관창아 마을이 처음 지정된 이래, 2021년 신안 주섬 주섬마을, 2022년 강진 병영창작상단, 2023년 고흥 신촌꿈이룸마을, 2024년 영암 달빛포레스트에 이어 올해 보성 전체

차(茶)렷(LAB) 마을이 선정돼 5년 연속 해당 사업을 이어가게 됐다.

선정된 마을은 3년간 최대 6억 원이 지원된다. 첫 해에 2억 원이 지급되며 이후 사업 성과에 따라 2년간 연 2억 원씩 추가 지원된다.

보성 전체차렷 마을은 이를 통해 보성 녹차를 주제로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고, 마을 유희 공간을 이용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청년과 함께 차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명신 전라남도 인구청년인민국장은 “청년마을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마을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행안부 청년마을과는 별개로 2022년부터 총사업비 51억 원을 들여 전남형 청년마을 17개소를 조성하는 등 청년이 주체가 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전남RISE센터, 지역-대학 동반성장 전략 모색

지역 주력산업 대학 특성화 연계 내달 사업계획 보완·예산교부 준비

전남RISE센터는 22일 올해 본격 추진하는 RISE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제1차 운영 자문위원회를 열어 전남형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회의에서는 올해부터 5년간, 총사업비 3031억 원이 투입될 전남형 RISE사업인 ‘GRAND 전남 5대 프로젝트’의 단위과제별 핵심목표 달성 전략과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과제 추진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위원들은 최초로 추진되는 지역-대학 공동 프로젝트임을 감안, 전남도의 주력·미래산업이 대학의 특성화 분야와 적극 연계되도록 소통 강화, 성과관

리 등 상시 점검체계 구축, 전폭적인 예산 지원 등을 강조했다.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발전 방향은 향후 대학별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위한 컨설팅 진행 시 최대한 반영될 예정이다.

전남RISE센터 운영 자문위원회는 범회승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해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명예교수, 최용국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김형순 테크로환경서비스 이사, 김현철 전남연구원 부원장, 이정광 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진흥본부장 등 산·학·연 최고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자문위원회는 센터 조직 운영과 주요 추진계획의 발전전략 제시, 전남형 RISE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방안과 추가

신규사업 제안 등 전방위적 정책지원을 논의할 예정이다.

범회승 원장은 “전남형 RISE사업의 핵심 목표는 지·산·학·연 공동 연구 강화, 도내 취·창업자 수와 도민 만족도 증대 등을 통해 지역 소멸을 대학과 함께 해결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며 “5년간 진행될 대규모 프로젝트인 전남RISE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RISE센터는 4월 초 지역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단위과제별 추진대학 선정 평가를 완료했으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대학별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 보완 및 예산 교부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